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경제

WTO Entry of China and Korean Economy

김 영 춘*

(Kim, Young-Choon)

목 차

Ⅰ. 서 론
Ⅱ. 중국경제의 현황과 특성
Ⅲ.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결 론

Ⅰ. 서 론

중국은 1986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을 하기 위해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나 기존 회원국가와의 가입조건에 관한 의견차이로 실패한바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로 가입 협상이 한 동안 중단된 바 있으나 1992년 이후 WTO 가입 협상은 급진전되어 미·중간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등 중국의 GATT 재가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WTO출범 이후 중국은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의 양자간 최종협상(관세감축, 시장접근물량, 동식물검역 등)을 타결하고,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마침내 WTO회원국이 되었다. 그 동안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통상규범을 개선하면서 서비스와 투자를 개방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상업교육과 교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의 WTO가입은 국내적 국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적인 측면으로, 중국은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에 광범위하고도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을 보다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으나 구조개혁에 있어서 사회주의 핵심인 소유제와 관련한 사상적, 계층적 반발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WTO가입이라는 외부의 힘을 이용하여 보다 강력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9년에 들어 수출감소,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실업률 증가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내 경기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WTO가입을 서두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제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측면으로 중국은 2001년 7월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 확정과 11월 WTO가입 성사로 정치·경제 측면에서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및 역할 변화에 맞는 지위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비록 일인당 GDP가 915달러(2001년)로 후발개도국이기는 하나, 경제규모, 시장규모, 교역규모 면에서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관계로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WTO가입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WTO가입은 자국의 경제는 물론 세계무역 및 투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시장경쟁체제하에 경쟁력이 낙후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하여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對韓國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중국경제의 현황과 특성

2.1 경제성장과 물가

중국경제는 1978년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2000년까지 년 평균 9.5%라는 세계경제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왔다. 또한 중국의 GDP는 2000년에 10,620억 달러, 2001년 11,6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5년을 고비로 내수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 기미와 아시아 외환위기,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1995-1999년에 걸쳐 각각 전년 대비 10.5%, 9.6%, 8.8%, 7.8%, 7.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2000년도에는 내수경기 회복세와 대외부문의 호조,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자 대폭확대로 인한 강력한 투자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GDP성장률은 8.0%로 회복되었다. 2001년도에는 7.7%로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 증가세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200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5%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성장이 국내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국제경제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비재 소매 총액은 2001년 1/4분기 9,256위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하여 GDP 대비 60% 수준이며, 도시와 농촌의 소비재 소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 8.3%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비증가는 수출증가, 정부의 임금상승, 여행, 오락 및 교육에 대한 민간소비지출증가, 농산물 가격상승 등에 기인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에 0.6%, 2001년에 2.3%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내수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실업률에 있어서는 2000년도 7.0%, 2001년 6.0%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와 수출증가로 인하여 고용 창출이 대폭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은 첫째, 13억이라는 세계인구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관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친 중화 경제권의 네트워크 형성과 거대한 화교 자본이 이러한 중국시장을 더 받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2.2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 현황

중국경제의 국제화·개방화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FDI가 1980년대에는 주로 노동집약산업에, 1990년대에는 자본집약적산업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집약산업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기업의 중국

내 아웃소싱 확대 및 다국적기업들의 기술집약형 생산기지의 이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FDI활용 상황을 보면 90년대 후반이래 매년 400억 달러(FDI 도착액)를 상회하고 있다. 2001년 10월말 누계 FDI 계약은 38만 49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계약액은 7,319억 달러, 도착액은 3,859억 달러로 개도국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도입

단위 : 억 달러

	계약액	증감률(%)	도착액	증감률(%)
1995	912.82	10.4	375.21	11.1
1996	732.76	-19.7	417.26	11.2
1997	510.03	-30.4	452.57	8.5
1998	521.02	2.2	454.63	0.5
1999	412.23	-20.9	403.19	-11.3
2000	626.57	52.0	407.72	1.1
2001. 1 ~ 10	552.01	26.9	372.53	18.6
20021. 10월말 누계	7,319.19		3,858.77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01」 및 對外貿易經濟合作部.

주 : 증감률은 전년비 및 전년 동기비율임.

중국의 FDI 유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기인한 것으로 본다. ☆중국의 저비용 생산기지 이점,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른 외국기업들간 저비용 경쟁의 영향,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기대감, ☆개혁·개방의 심화와 고성장 지속으로 빠르게 현재화되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 수익성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엔화 환율 안정세 유지 등에 기인한다.

주요 국별 對中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1998-2000년 기간 중 동아시아국가들의 투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주춤한 반면, 미국과 EU의 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FDI유치 총액에서 미국과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의 8%와 5.7%에서 2000년에는 각각 11% 선으로 상승했다. 미국과 EU의 對中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에 미치지 못했으나, 1998-2000년 기간 중에는 각각 연평균 40억 달러 이상에 달해 일본의 투자를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는바, 중국의 FDI 유치총액 중 제조업 비중은 1998년 56%에서 2001년 1월-8월중에는 68%에 달했다. 중국의 공업생산 총액에서 외자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1995년 15%에서 1999년 21%로 상승했고, 수출총액 중 외자기업의 비중도 1997년 41%에서 2000년 48%, 2001년 1월-6월 중 50%로 급상승했다. 포춘誌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약 400개 기업이 이미 중국내 2천여 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바, 컴퓨터와 전자, 통신장비, 제약, 석유화학, 발전설비, 승용차 등 부문의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해왔다. 최근 유치한 FDI의 업종별 비중을 볼 때 종래 FDI가 집중되었던 업종인 신발, 여행용품, 완구, 자전거, 전기기구 등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3 수출입추이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은 급속한 대외무역액 증가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1978년의 206억 4,000만 달러에서 2000년에 4,743억 달러로 23배 증대되었다. 이 중 수출은 1978년의 97억 5,000만 달러에서 2000년에 2,492억 달러로 기간 중 연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은 1978년의 108억 9,000만 달러에서 2000년에 2,251억 달러로 기간 중 연평균 14.8%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2 참조>.

<표 2>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출(전년 대비)	1,488(23.0)	1,510(1.5)	1,828(21.0)	1,838(0.5)	1,951(6.1)	2,492(27.8)
수입(전년 대비)	1,321(14.2)	1,388(5.1)	1,424(2.5)	1,402(-1.5)	1,659(18.2)	2,251(35.8)
무역 수지	167	122	404	436	292	241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편 중국의 대외무역액이 세계 전체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65%, 1995년의 2.89%에서 2000년에는 3.64%로 증대되어 세계 6위를 점유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그 만큼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중국의 무역상대국이 일본, 미국, 홍콩, 한국 순이며, 2000년에 對美·對日 수출이 각각 24.1%, 24.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이 44.4%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입의 경우 對日·對臺灣 수입이 각각 22.9%와 30.5%씩 증가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각각 34.7%, 14.8%의 수입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무역액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의 주요 동인으로는 첫째,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내부적인 구조조정과 생산라인 효율화를 꾸준히 지속해 온 국유기업의 해외 교역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세계경제 교역량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0년 초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세계 각국은 긴축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제품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였다는 점과 WTO가입을 앞둔 중국으로의 외국기업 진출과 공업원료 구입 등으로 국내경제가 활성화되었고 IT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자본·기술집약산업의 FDI 유치 급증으로 중국내 외자기업에서 생산된 중고급제품의 수출 증가로 선진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상품의 점유비율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이는 1996년 45억 달러에서 2000년 298억 달러로 총 수출액 대비 12%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전체의 고급기술제품 수출액의 81%에 해당한다.

2.4 외환보유고와 외채

중국경제가 갖는 또 다른 강점으로 건실한 외화보유와 개도국으로서 상당히 양호한 외채, 여기에 對美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안정세 유지 등이다.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 736억 달러에서 2001년 11월 기준으로 1,720억 달러로 5년 사이 2.3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외환보유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환보유의 꾸준한 증가세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중국 주식투자 열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표 3> 중국의 금융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잔액기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1말
외환보유고	736	1,050	1,399	1,450	1,547	1,670	1,720
외채	1,066	1,163	1,310	1,460	1,518	1,457	1,647
위안/달러	8.32	8.30	8.28	8.28	8.28	8.28	8.28
금리	10.1	11.9	10.8	6.2	7.3	5.8	5.8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중국의 외채 잔고는 2000년 1,457억 3,000만 달러로써 1999년 대비 61억 달러가 감소했으며, GDP대비 총 외채는 13.7%로 나타났으며 2001년에도 14.1%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채구조별로 보면 2000년 기준으로 중국의 중장기 외채잔고는 1,326억 5000만 달러로 1999년 대비 40억 달러 감소했으며, 단기 외채잔고는 130억 8,000만달러로 1999년 대비 21억 달러 감소했다.

중국의 중장기 외채비중은 91%, 단기 외채비중은 9%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채규모 면에 있어 GDP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WTO가입은 회원국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받게 되고, 그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취해졌던 차별적인 조치들이 제거됨으로서 중국의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의 WTO가입으로 2005년에 무역규모가 6천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연간 2-3%씩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GDP 2.9% 증가한 약 240억 달러 증가하고 1천만 명의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WTO가입 이후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대됨으로써 중국의 잠재성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가입으로 WTO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상품의 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규정 및 절차, 무역정책검토제도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우대조치를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기업에 대해 현지부품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수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도 병행하여 왔다. 그러나 WTO가입으로 중국은 WTO의 규범에 어긋나는 외자정책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은 WTO가입과 더불어 외자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그 동안 외지기업에 부여되었던 특혜 조치들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환경변화는 외국인투자구조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60%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WTO 가입과 함께 중국이 금융, 통신, 유통, 전문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규제를 완화하게 됨으로써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중국 국내시장 경쟁 격화,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부 우대정책 폐지, 셋째,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일부 산업의 중복 투자 가능성, 넷째, 외국기업의 중국내 용자제한 폐지로 인해 실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WTO가입 이후에는 중국경제가 활성화되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총 시장규모는 WTO가입전의 1,667억 달러에서 1,8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패해, 시장교란, 국제수지문제 등 중국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하여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TO 회원국 중에서 다자간 무역규범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로 지금까지 전체 분쟁의 68%를 이들 4개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제 중국경제의 국제적 부상으로 개도국을 대변하고, 자국의 실리 추구를 위해서 무역분쟁의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WTO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는 정부·기업의 분리, 국유부문의 축소와 잉여인원의 정리, 금융개혁(부실채권의 정리) 등과 같은 고통스런 개혁이 필히 수반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개혁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기업의 미분리, 노동공급의 과잉, 경쟁력 없는 설비의 과잉 문제 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공급의 과잉 문제는 최근 도시 실업률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퇴직자와 실직자의 사회보장체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나아가 소비부진 및 디플레 압력을 낳는 근본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WTO가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촉진과 외국기업의 투자증대, 서비스부문의 발전 등에 따른 실업률 상승효과 보다는 구조조정 가속화와 경쟁심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국가이든 개혁과 체제전환에는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처럼 인구가 많고 고용 압력이 큰 경제에서는 실업 등 조정비용의 증가는 다른 국가에서와 다른 보다 심각한 체제변환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WTO가입 이후 농업, 철강, 기계 등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과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전자·컴퓨터·통신·서비스산업으로의 재배치과정에서, 기업 도산·업종전환, 설비의 이전과 폐기비용, 실업, 노동자 교육·훈련비 등 많은 조정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문제도 심각하다. 1999년 초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의 파산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은행·비은행 할 것 없이 10%-20%의 많은 부실채권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증권·보험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 금융산업은 많은 구조조정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인민폐가 자본거래에 관해서 非兌換 화폐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도 봉쇄되어 있어 헤지펀드 등 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차후 자본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 환율·이자율의 변동, 물가의 관리, 헤지펀드 공격 등에 대비한 조정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Ⅳ.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가입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 첫째, 중국의 관세인하, 쿼터의 철폐·축소 등 무역장벽을 완화시켜 주게됨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로 對中國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내 공급이 부족하고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하이테크, 가전, 통신기기 및 기타 공산품용 원부자재와 장비·기술에 대한 관세, 비관세장벽이 낮아질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한 화학섬유·유기화학·철강·의류 등의 원부자재, 기계류·가전제품·사무용기기의 부품, 공급부족 원료와 기술의 對中 수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섬유직물과 의류의 경우,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글로벌 수출 쿼타가 2005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직물·의류의 해외수출이 증대할 것이고, 중국내 원부자재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 섬유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개발 노력에 따라 경제의 정보화, 기계류의 IT화와 서부대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임에 비추어 對中國 정보통신기기, 기계류, 철강 등의 수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중국이 WTO가입으로 법규·정책·제도가 투명해지고, 내국민대우원칙·정책조치상의 공평성 등이 높아져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시장개척형 직접투자 유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 의무, 수출이행 의무비율, 외환수지 평형의무 등 무역관련투자조치 관련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 타당성 평가와 현지기업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에서 한·중간 수출경합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중국기업들은 WTO가입 이후 그 전보다 양질의 해외기술, 원부자재, 부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되고, 보다 투명해진 중국시장에 대한 선진국 초·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중국기업의 기술 수준과 비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의 국제화 진전과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생산코스트 및 시장규모에서 현저한 열세에 놓여 있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힘겹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유수 기업들이 아시아 내지는 세계 전략 중심지로 중국을 선택하게 되면 경제의 구조조정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한국은 적지 않는 애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TO가입 이후 중국측의 무역·투자장벽 완화가 주는 단기적 충격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질 것이다. 물론 중장기적인 영향은 正, 負의 영향이 있으나 그 순효과는 대체로 負

로 나타날 가능성 많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국산업과 제품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국시장 접근확대를 통해 얻었던 이익의 상당부문이 상쇄될 것이고, 오히려 한국은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방어, 중국 내수시장 확대 등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WTO가입은 새로운 기회이자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다. 2001년에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철강, 조선, 컴퓨터,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주력산업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중국의 산업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조만간에 한국을 제치고 우위에 설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즉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WTO 수준에 맞게끔 경제체제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시장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점차 바꾸어 나감에 따라 중국의 국제경쟁력은 급속히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이라기보다는 한국 수출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경쟁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V. 결 론

중국은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기반으로 산업구조와 대외경제의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그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대국화는 중국의 경제규모 및 시장의 팽창, 중국의 세계적인 생산기지화, 주변국 경제자원의 중국 중심의 재편 등의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향후 한국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회와 함께 엄중한 도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중국에 대해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우선 과제이다. 둘째, 한국경제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중국에 차별화된 산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범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향후 한국경제는 중국 중심의 역내분업화를 꾀하는 중화경제권의 형성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성이 강한 분야를 위주로 하여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 등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중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향후 늘어나게 될 중국과의 통상과 투자로 초래될 수 있는 마찰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바, 주로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는 중국의 요구와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기업은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에 대응하여 중국시장에 진입할 때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바, 이는 주로 경쟁력에 기반한 중

국시장에의 진출, 제조업 위주의 현지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 브랜드 관리와 현지 마케팅을 강화, 중국기업과 합작투자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제조업이 확대되면서 동북아 국경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농산물의 최소시장접근물량이 확대되면 중국의 잉여농산물이 한국으로 덤핑 수출될 가능성 외에도 제3시장에서 날로 치열해 지는 경쟁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인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정책시사점이다.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시사하는바, 이는 관세를 인하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자국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늘림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 그 인센티브가 있다. 아울러 중국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익수(1995), 「중국의 WTO 가입이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통상법률, 8집, 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2000-2002 각호.

서현재(1995), 중국의 GATT/WTO 가입 현상의 진행과 쟁점, 중국연구, 9집 4호.

오용석(1998), 중국의 WTO 가입이 동북아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제2회 한국 동북아 경제학회 정책회의.

정인교(2001),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1. 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2001.

UNCTAD(2001), "The Evolving Profile of FDI in China",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Walmsley, Terrie L. and Thomas W. Hertel(2000), "China's Accession to the WTO : timing is Everything", Mimeo. 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 Purdue University.

Wei, Zheo(1998), "China's WTO Accession:Commiments and Prospects", Journal of World Trade, Vol.32, No.3.